

전주, 세계가 또 한번 인정하다

문화·관광으로 글로벌 전주 위상 '재확인'

▲세계를 매료시킨 문화 관광도시 전주

전주시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세계무형유산포럼, 세계슬로포럼의 3대 국제포럼과 전주비빔밥축제, 전주 대사습놀이, 전주한지문화축제의 3대 문화축제의 경쟁력 강화, 전주한옥마을의 국제관광도시화, 시민이 사랑하고 세계가 찾아오는 독립영화도시 조성, 역사문화도시 4대사업(전라감영 복원 및 재창조,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벨트 조성, 전주4대문 르네상스 사업) 추진, 시민이 주도하는 세계 속의 인문도시 구축 등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주시는 이미 민선6기 이후 가장 전주다운 세계 속의 전주로 도약했다는 평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고 세계적인 여행지 '론리플래닛'이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했으며, 이를 CNN이 전 세계에 방영했다.

또한 세계지방정부연합 멕시코 문화어워드에서 전통문화도시전락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영국 영국의 유력 언론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한국에서 음식의 새로운 상대할 곳이 없는 도시'로 소개되기도 한 전주 향토 음식은 건조하고, 절이고, 발효시킨 '슬로푸드' 요리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와 함께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 수평예도시 도약, 루브르 박물관과 유네스코, 바티칸이 주목한 전주 한지, 미국의 영화평론잡지 '무비메이커'가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로 꼽는 등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국제 교류 영역을 기존의 단순 행정 간 교류에서 한 발 더 나가 영국항공 등의 항공사, 국제기구, 외교체널 등을 활용한 글로벌 홍보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대사관에서도 전주에 관심을 갖고 교류를 요청했으며, 미국 CNN과 중국 CCTV 등 주요외신에서는 전주의 문화와 축제 등이 소개됐다

▲신뢰 받는 명품도시, 세계가 인정한 전주

국제슬로시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등에 이어 안전도 갖춘 국제인증 4관왕 도시 전주시는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 강화는 물론 도시의 신뢰성까지 갖추며 글로벌 인증도시로

론리플래닛에 관광명소 선정 등 전 세계 이목 끌어 음식창의·슬로시티·아동친화도시로도 자리잡아

자리 잡았다.

음식창의도시 선정은 도시 홍보에 유네스코 로고를 공식 사용하고 전주시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게재·홍보할 뿐 아니라 전주비빔밥축제부터 향토 음식과 전통문화를 지극한 곳곳에 전주를 알리며 천만 관광도시의 도화선이 되었다.

또한 전주시는 세계최초 도심형 슬로시티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슬로운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전주시는 인구 60만 도시 중 세계 최초로 도시 전역이 국제슬로시티로 확대·재지정 되면서 도시 전역이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고, 느낌의 미학이 살아있는 도시다. 이에 '2018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 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에서 지역주민 마인드와 교육 '기관 표창' 부분의 슬로시티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주시는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세계가 인정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다.

시는 민선6기 공약인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정을 담은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굵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도서지역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아이들은 위한 자연 속 놀이터 '전주 아이숲', 365·24 아동친화실 운영 등 아동친화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도시의 미래주역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전주다울 때,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이다. 그러한 전주다움으로 전주는 이제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닌 세계인이 꼭 찾고 싶은 도시가 되고 있다"면서 "전주의 문화영토를 계속해서 세계에 넓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행객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누수감면 지원 확대

수돗물 누수로 인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누수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 급수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내 누수감면 제도는 누수량이 직전 3개월분 월 평균 사용량보다 3배 이상이면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누수감면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200톤을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시행규칙 중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식되는 누수량 중 월 평균 사용량을 뺀 나머지 누수량은 50퍼센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개정해 누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노후 급수설비 2억840만원 지원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화된 급수관을 교체해줄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올해 총 2억 840만원을 투입해 건축물 내부의 부식성 노후 급수관을 개량 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는 부식성 자재가 사용된 주거용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내 급수관을 개량(세척, 강생, 교체)할 경우 단독주택(85㎡이하)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주택(전용면적 85㎡이하인 세대 50%이상일 경우)은 최대 3000만원, 다가구 주택(330㎡이하)은 최대 150만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은 총 공사비의 70%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남원서 20대 흉역 확신

전북 남원에서 흉역확진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시에 사는 20대가 흉역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격리 입원조치 했다.

이 환자는 지난 20일부터 발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흉역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이후 보건당국이 흉역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그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시 보건소는 환자를 격리하고 그의 가족과 친척 등 접촉자를 상대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이 환자는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으로, 최근 모국을 방문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족과 친척 등은 흉역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의 항체도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전북경찰 9지구대, 봄철 안개대발구간 교통사고 예방 훈련

전북경찰이 안개 등 봄철 기상악화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안개 발생 다발구간인 순천안주고속도로 소양(30)에서 익산장수고속도로 부귀터널까지 2개 노선 30km에 걸쳐 교통사고 예방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안개 훈련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순찰차량과 발생 후 후속처리에 의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에 집중했다. 사고 발생 시 상황실 요원은 신속한 사고현황 상황전파 및 현장 출동 조치, 사상자 구조조치를 지시한 뒤, 유관기관에 사고 상황을 통보한다.

이후, 후속처리에 의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순찰차와 암행순찰차를 투입, 사고현장 진입 전 원거리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VMS(도로전광판)에는 안개 주의와 감속유도를 알리는 문자를 표출해 운전자가 주의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석훈 기자



비내리는 전북대 교정. 원만한 봄날씨를 보인 25일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교정을 지나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집중'

전주시, 정부 세종청사 방문 주요 현안 반영 건의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방문활동 현장보고회를 가졌다.

김양원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 10여명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활동 현장보고회'를 열고 전주시의 성장동력이 될 중점 확보대상사업 중 신규 사업 위주로 그간 부처 확보활동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부처 집중방문 기간을 설정하고 부처 예산안에 전주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보활동을 전개한 데 대한 결과 보고하였다.

보고회 후에는 7개 국·소·과장들이 일제히 담당 부처를 방문해 확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김 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전주한옥마을 관광가이드 정비(글로벌웹센터 건립)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신축 공사시설 현대화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



한 탄소복합재 부품 개발 △고속 일체형형법을 이용한 수소 상용차용 원가절감형 수소용기 개발 사업 등 전주시 주요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예산 반영에 미흡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김양원 부시장은 이날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되기 전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올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총 54억원(지방세 26억원, 세외수입 28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세 특별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시 세입부서에는 19만 여건의 체납분에 대한 납부촉탁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와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중 2일간의 변호환함동영치를 실시하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수도요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4월 중 변호환영치와 단수조치에공로 3만 여건을 발송했다. /송효철 기자

H빔 안전간대 흠친 50대 검거

공사현장에서 보관하던 H빔 안전간대를 흠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5)씨를 불구속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임실군 모 버섯재배농장 신축공사 현장의 공터에 적재된 시가 150만원 상당의 H빔 안전간대 30개를 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효철 기자